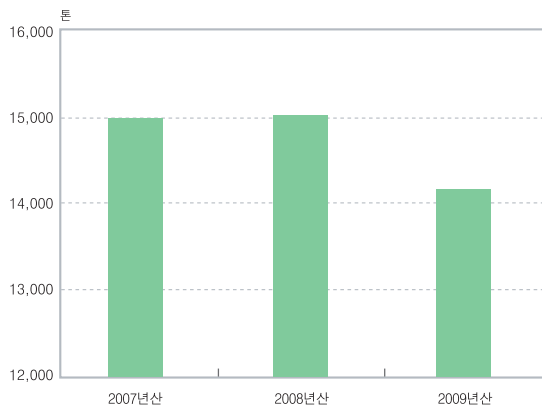


이번 포커스는 2009년산 굴 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은 이유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았다.

2009년산 굴 산지가격, 최근 5개년 평균 가격보다 최고 67% 높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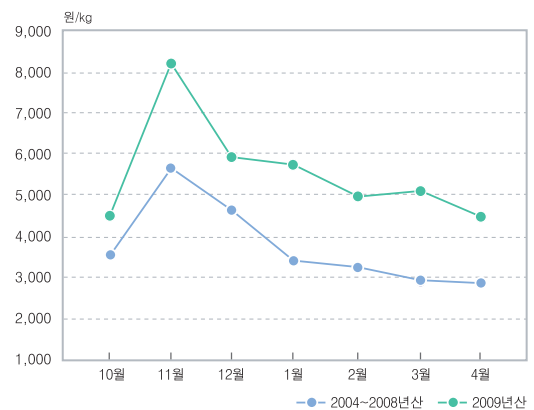
- 2009년산 굴 위판 물량은 예년에 비해 5.7% 적은 1만 4,182톤이었고, 산지가격은 여기 내 최근 5개년(2004~2008년산) 가격보다 평균 50.1% 높은 수준이었다. 가격 편차를 보면 11월이 2,600원으로 가장 컸으며, 가격상승폭은 1월이 66.8%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.

〈위판 물량 변화 추세〉



주 : 위판 물량은 각 년산 여기 중 4월까지의 누적임
자료 : 각 수협

〈주 생산시기 산지가격 변화 추세〉



굴 가격 상승, '자연적 생산 감소'와 '인위적 출하조절'이 주 요인

- 2009년산 굴 가격이 예년보다 높게 형성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, 공급측면으로는 2008년산 월하굴 시설량이 적었고, 어기초 양성상태가 좋지 못해 생산량이 감소하였다. 특히 가격을 주도하는 경남의 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, 예년보다 개당 중량이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. 또한 자율적인 출하조절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- 수요측면으로는 경제 불황과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로 국내 김장 수요가 증가하였으며, 타 식품에서 멜라민 파동이나 광우병 문제 등과 같은 식품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여 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.

〈2009년산 굴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〉

구분	공급 측면	수요 측면
가격 상승 요인	• 월하굴 시설량 감소 • 어기초 양성상태 불량 • 가격을 주도하는 경남의 생산량 감소 • 비만도 저하 • 자율적 출하조절 효과 (매주 수, 일요일 위판 자제)	• 국내 김장 수요 증가 (중국산 식품안전성 문제, 배추가격 하락) • 타 식품의 식품안전성 문제 발생 (멜라민 파동, 광우병 문제 등) ⇒ 굴 수요 증가 • 김장철과 설 연휴가 이어짐

굴 수산물관측

제159호 | 2009년 5월

2009년 5월 6일 발행 등록번호 서울 라09578 ISSN 1739-5283 발행·편집인/ 강종희 발행처/ 한국해양수산개발원
주소/ 121-2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KBS미디어센터 14층 TEL. (02)2105-4920 FAX. (02)2105-4939
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.kmi.re.kr 인쇄/ 서울기획문화사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주요 양식수산물의 생산, 가격, 수출입동향 등 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매월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더 세부적인 관측정보 및 수산업관측사업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(<http://www.foc.re.kr>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4월 굴 생산량, 작년 동월보다 소폭 감소 5월 생산량도 작년 보다 적고, 가격은 4월 대비 약보합세 보일 듯

- ▶ 4월 굴 생산량은 3,113톤으로 지난달에 비해 24% 줄었으며, 작년 4월에 비해서도 6% 적은 수준이었다.
- ▶ 굴 생산이 종료된 지역은 전남, 충남, 경남 남해 등이며, 경남 통영·고성·거제는 5월에 생산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.
- ▶ 종어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지가격은 모든 지역에서 지난달에 비해 하락하였다. 그러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60%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작년 대비 가격 강세가 이어졌다.
- ▶ 4월 굴 수출량은 2,058톤으로 지난달에 비해 60% 증가하였지만,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18% 적었다.
- ▶ 5월 생산량은 잔여시설량이 작년보다 적기 때문에 작년 동월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, 산지가격은 종어기를 맞아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약보합세로 전망된다.

5월 표본어가 조사 기간은
5월 24일(일)~27일(수)입니다.
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생산동향 굴 생산량, 작년 4월보다 6% 적어

양식산 굴은 수하식(垂下式)과 투석식(投石式)으로 생산되나, 투석식은 생산량이 미미하고 시설량 파악이 곤란하여 관측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
4월 굴 생산량, 작년 동월보다 6% 적은 3,113톤

- 4월 굴 생산량은 3,113톤으로 지난달에 비해 23.5% 줄었으며, 작년 4월에 비해서도 6.1% 적은 수준이었다. 이는 잔여시설량이 작년 4월에 비해 적었고, 굴의 비만도도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.
- 지역별로는 경남과 전남 모두 작년 동월에 비해 생산량이 적었으며, 특히 전남의 경우 여수의 생산이 예년보다 다소 빠른 4월 상순에 종료되면서 생산량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. 한편 4월까지의 2009년산 굴 생산량은 3만 2,411톤으로 전년산과 비슷한 수준이었다.

〈4월 굴 생산 동향〉

(단위 : 톤, %)

구 분	2008년산		2009년산				
	4월	연산 누계	3월	4월	전월 대비	작년 동월 대비	연산 누계
전 국	3,314	32,640	4,069	3,113	-23.5	-6.1	32,411
경 남	3,131	29,322	3,513	2,941	-16.3	-6.1	27,435
전 남	183	3,179	503	164	-67.4	-10.4	4,585
기 타	-	139	53	8	-84.9	-	391

주 : 알굴 기준이며, 2009년산 4월은 잠정치

4월 말 잔여시설량, 작년 동월보다 적은 138만 연

- 4월 말 잔여시설량은 초기시설의 6.7%인 138만 연으로 작년보다 61만 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. 지역별로 보면 경남은 작년 동월에 비해 잔여시설량이 40만 연이 적었으며, 전남과 기타지역은 월하(越夏) 시설 없이 4월 중 생산이 종료되었다.

〈4월 말 굴 잔여시설량 현황〉

(단위 : 만 연, %)

구 분	초기 시설량	4월 채취량	잔여 시설량	잔여 시설률
전 국	2,054	169	138	6.7 (9.3)
경 남	1,626	145	138	8.5 (10.7)
전 남	373	20	0	0.0 (5.3)
기 타	55	4	0	0.0 (0.0)

주 : 5m 수하연 기준이며, 기타지역은 생산이 가능한 시설만 포함된 것임
() 는 전년 어가의 동 시점 잔여시설률임

- 한편 표본어가를 대상으로 월하의향을 조사한 결과, 작년에 비해 월하를 하고자 하는 어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, 월하를 하더라도 그 양은 작년에 비해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.

- 이는 어기 초부터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고, 예년에 비해 양성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함에 따라 가격 강세가 어기 말까지 지속되는데 따른 것이다. 즉, 양식어가들이 굴을 월하하여 2010년산 어기초에 생산하는 것보다 이번 어기 내 생산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. 따라서 금년산 월하량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.

경남지역 양성상태, 통영은 대체로 양호한 반면 고성은 예년수준에 못 미쳐

- 4월 들어 강우량이 늘어나면서 굴 양성상태는 지난달에 비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지역별로는 전남과 충남의 양성상태가 전반적으로 호전된 상태에서 어기가 종료되었다. 그러나 어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남의 경우 양성상태가 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다. 통영의 양성상태는 양호한 반면 거제는 호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고성은 전반적으로 작년 및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.

※ 4월 중 폐사와 병해는 없었으나 누적 폐사량은 작년 보다 많음

〈4월 굴 양성상태〉

지 역			성장	비만도	폐사	병해	비 고
경남	통 영	한산만	△	△	○	○	해황이 양호하여 작년/예년 수준 보임
		인평 · 도산만	△	△	○	○	성장 · 비만도 호전
		지도 · 원문만	△	△	○	○	해황이 양호하여 작년/예년 수준 보임
	고 성	고성 · 자란만	×	×	○	○	성장 · 비만도 작년/예년 수준에 못 미쳐
	거 제	거제만	△	△	○	○	양성상태 호전
		진해만	△	△	○	○	
	남 해	강진만	-	-	-	-	3월 중 어기 종료
전남	여 수	가막·장수·여수만	△	○	○	○	4월 중 어기 종료
	고 흥	-	-	-	-	-	2월 중 어기 종료
	완 도	-	△	△	○	○	4월 중 어기 종료
	진 도	-	○	○	○	○	
충남	서산·태안	가로림만 등	△	△	○	○	

주 : ○는 작년보다 양호, △, ▼(△는 호전되는 중 ▼는 악화되는 중)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, ×는 작년보다 부진을 나타냄. 단, 충남은 예년 수준을 기준으로 함

〈해황 및 기상예보〉

(기간 : 5월 1일~31일)

■ 5월의 수온전망(국립수산물과학원)

구 분	동해 중남부	남 해	서해 중남부
수온 분포	16~19℃	16~18℃	12~14℃
평년 대비	1~2℃ 내외 고온상	1℃ 내외 고온상	1℃ 내외 고온상

■ 5월의 기상전망(기상청)

구 분	날 씨	기 온	강수량
상 준	맑은 날이 많겠음	평년(11~17℃)보다 높겠음	평년(24~82mm)보다 적겠음
중 준	맑은 날이 많겠음	평년(12~18℃)과 비슷하겠음	평년(27~80mm)과 비슷하겠음
하 준	맑은 날이 많겠음	평년(13~20℃)보다 낮겠음	평년(13~59mm)과 비슷하겠음

가격동향

산지, 도·소매가격, 작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 지속

산지가격, 작년 동월 대비 61% 높게 형성

- 4월 굴 산지가격은 kg당 4,516원으로 지난달에 비해서는 11.1% 하락하였지만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60.6% 높게 형성되었다.
- 지역별로는 통영의 가격이 kg당 4,525원으로 가장 높았으며, 고성은 4,441원이었다. 4월 상순 위판이 종료된 여수의 가격은 전월에 비해 1.7% 하락했으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86.5% 높게 형성되었다.

〈생굴 산지가격 동향〉

(단위 : 원/kg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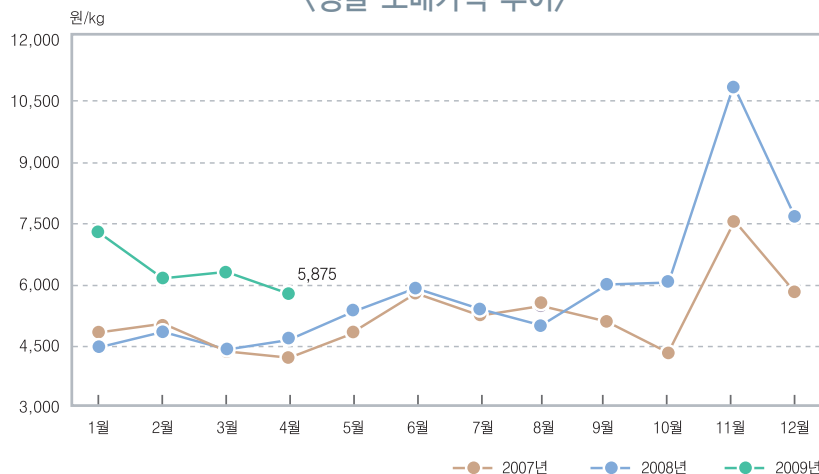
구 분	2008년	2009년			
	4월	3월	4월	전월 대비	작년 동월 대비
평 균	2,811	5,081	4,516	-11.1	60.6
통 영	2,782	5,080	4,525	-10.9	62.6
고 성	3,105	5,188	4,441	-14.4	43.0
여 수	2,309	4,378	4,306	-1.7	86.5

주 : 여수는 4월 5일 위판이 종료되었음
자료 : 각 수협(2009년 4월은 잠정치)

도매가격, 작년 동월 대비 26% 높은 수준

- 노량진수산시장의 4월 생굴 도매가격은 kg당 5,875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6.7% 하락했다. 이는 예년의 추세와 달리 올 3월 도매가격이 2월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. 그러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25.8% 높은 수준이었다.
- 한편 노량진수산시장의 4월 생굴 거래량은 70톤으로 지난달에 비해 52.9% 줄었으나, 작년 동월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.

〈생굴 도매가격 추이〉



자료 : 노량진수산시장

-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사가격은 kg당 7,206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3.7% 하락했지만,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23.4% 높은 수준이었다. 이는 어기 초에 높게 형성된 가격이 종 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.

〈생굴 도매가격 동향〉

(단위 : 원/kg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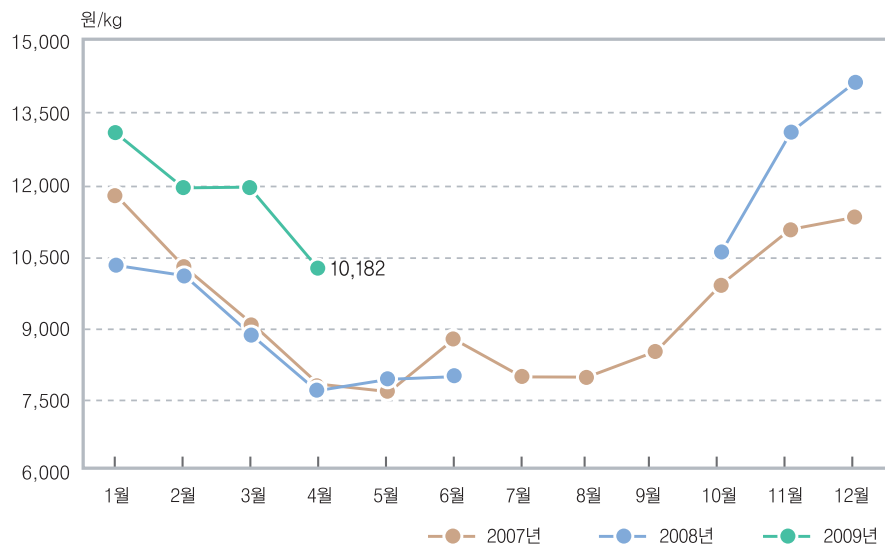
구 분	2008년	2009년			
	4월	3월	4월	전월 대비	작년 동월 대비
노량진수산시장	4,669	6,296	5,875	-6.7	25.8
농수산물유통공사(상품)	5,838	7,486	7,206	-3.7	23.4

주 : 노량진수산시장은 평균 경락가격,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조사가격

소비자가격, 작년 동월 대비 33% 높게 형성

- 4월 생굴 소비자가격은 kg당 10,182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14.9% 하락하였으나,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33.2% 높은 수준이었다.
-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가장 작았던 부산지역이 kg당 10,35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다.

〈생굴 소비자가격 추이〉



자료 : 농수산물유통공사

〈생굴 소비자가격 동향〉

(단위 : 원/kg, %)

구 분		2008년	2009년			
		4월	3월	4월	전월 대비	작년 동월 대비
전 국		7,647	11,968	10,182	-14.9	33.2
주요 도시	서 울	8,000	11,761	9,061	-23.0	13.3
	부 산	7,071	10,950	10,355	-5.4	46.4
	광 주	8,000	11,462	8,682	-24.3	8.5

주 : 전국 소비자가격은 서울, 부산, 인천, 광주, 대구, 대전, 청주, 전주의 조사가격 평균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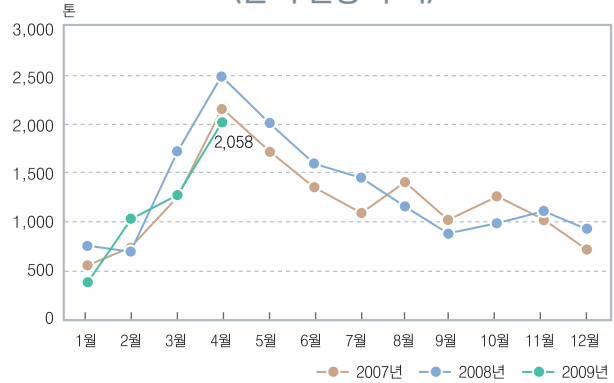
자료 : 농수산물유통공사

수출입동향

4월 굴 수출량, 작년 동월 대비 18% 감소

- 4월 굴 수출량은 2,058톤으로 지난 달에 비해 59.5% 증가했다.
- 제품별로는 알굴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수출량이 지난달에 비해 증가했다. 특히 지난달에 수출실적이 없었던 건조굴의 수출이 재개되었다.
- 한편 4월 수출량은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17.6% 적었다. 이는 산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가공업체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.
- 제품별 수출량은 알굴과 냉동굴이 각각 51톤, 1,290톤이었으며, 건조굴과 통조림은 각각 165톤, 552톤이었다.

〈굴 수출량 추이〉



주 : 알굴로 환산(마른굴은 5배, 통조림은 2.5배 수출 적용)하였고, 치패는 제외하였음(2009년은 잠정치임)

자료 :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(KTnet)의 「수출입통계」

〈굴 제품별 수출량〉

(단위 : 톤, %)

구 분	2008년	2009년			
	4월	3월	4월	전월 대비	작년 동월 대비
알 굴	90	62	51	-17.4	-43.2
냉동굴	1,365	839	1,290	53.7	-5.6
건조굴	582	-	165	-	-71.6
통조림	462	389	552	41.9	19.7

자료 : 상동

해외동향

오사카중양도매시장의 산지별 거래량, 전년 대비 78% 이상 감소

- 오사카중양도매시장의 굴 반입량은 2008년산에 비해 78.2% 감소했다. 특히 주요 산지 중 한 곳인 히로시마(廣島)현의 반입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러한 도매시장 반입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지별 경락가격은 30% 이상 하락했다. 이는 최근 일본 내 굴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.

〈생산지별 굴 거래동향〉

(단위 : kg, 엔, %)

구 분	2008년산		2009년산		거래량 증감률	단가 등락률
	거래량	단가	거래량	단가		
합 계	934,455	1,180	204,044	735	-78.2	-37.7
히로시마현	423,882	1,164	81,907	814	-80.7	-30.0
오카야마현	143,895	848	48,700	515	-66.2	-39.3
효고현	148,201	1,225	44,550	715	-69.9	-41.6
기타	218,477	1,400	28,887	913	-86.8	-34.8

주 : 일본 오사카중양도매시장의 거래량과 단가임

생산 및 가격전망

5월 생산량 및 수출량 작년 동월보다 감소,
산지가격은 전월 대비 약보합세 전망

5월 굴 생산량, 작년 동월보다 감소 예상

- 전남과 충남, 경남 일부지역의 생산이 4월로 종료되었다. 또한 5월에도 생산이 가능한 통영·거제·고성지역의 잔여시설량이 작년보다 적은 상태이다.
- 따라서 5월 굴 생산량은 작년 동월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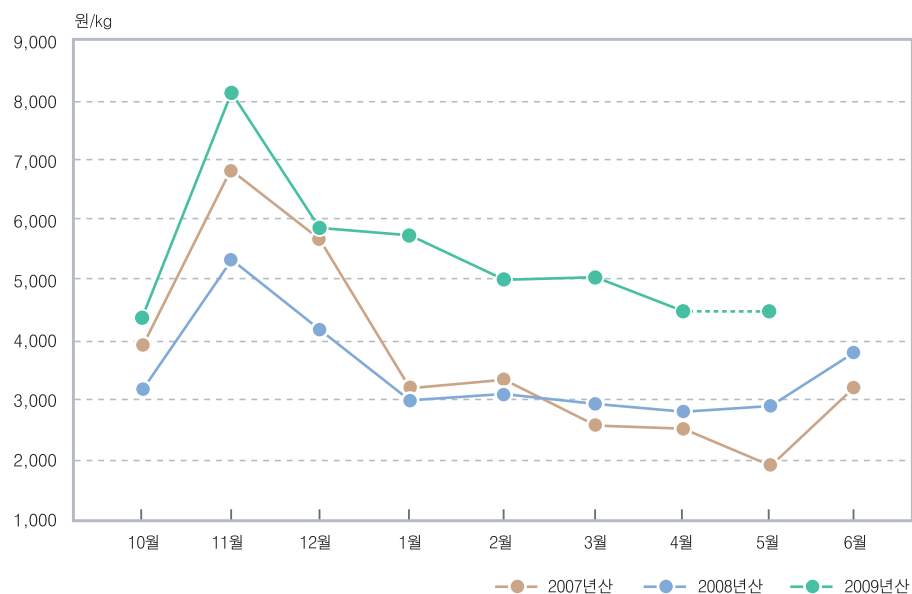
5월 굴 수출량, 4월보다 감소할 듯

- 지난달에 이어 5월에도 생산량 감소와 높은 산지가격 등으로 가공업체의 물량확보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5월 굴 수출량은 4월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, 작년 동월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.

5월 굴 산지가격, 전월 대비 약보합세 전망

- 5월에는 종여기를 맞아 굴 생산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온이 점점 상승하면서 굴 수요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5월 굴 산지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.

〈생굴 산지가격 전망〉



주 : 5월은 전망치이고, 산지가격은 굴수하식수협 위판가격 기준임
자료 : 굴수하식수협